

No.7

Japan Weekly Digest

2009. 11. 2 ~ 11. 8



사단법인 **한일경제협회**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■ CONTENTS

Japan Weekly Digest (No.7)

(사)한일경제협회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
www.kje.or.kr
www.kjc.or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
112-15 한일재단빌딩

TEL/02-3014-9888
02-3014-9898

FAX/02-3014-9899
02-3014-9800

□ 금주의 이슈

- '포천막걸리' '일동막걸리' 일(日)기업이 상표 등록
- 무역흑자 사상 처음으로 일본 추월
- 日, 한국인에 민간인 최고 훈장 수여
- 추월당한 '전자대국'... 일본의 충격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日, 정부 산하기관 자산매각 가속화
- 한일 경제계, 서머타임제 시행 공동 촉구
- 하토야마, 개인자산에서 정치자금 사용 인정
- 美·日 정상회담 이달 13일로 확정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차세대 자동차전략연구회 설치
- 행정쇄신회의에서 200개 사업 철폐 검토
- 기업재생지원기구, 중소기업재생 전문팀 구성
- 도요타 F1 불참.. 속도보다 '환경' 중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기술신화 붕괴, 고부가가치 소재업체의 모색,
주간 동양경제(09.11.7)

* 자료작성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
일본지식정보센터

□ 금주의 이슈

- ‘포천막걸리’, ‘일동막걸리’ 일(日)기업이 먼저 상표 등록
 - 일본의 ‘청풍’이라는 주류업체가 2008년 11월 일본 특허청에 상표 등록, 국내 업체는 일본에 같은 이름으로 막걸리를 내놓을 수 없게 됨
 - 한국 국내법상 ‘포천’처럼 지명(地名)이 들어가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나 지리적표시제(GI)에서 등록하면 지명이 상표권보호를 받을 수 있음
 - 일본 특허청의 상표 등록비는 변리사의 대리 수속비용 등 30~50만엔 소요
 - 청풍이라는 회사는 2006년 6월 일본 고베(神戸)시에 자본금 3000만엔으로 설립한 주류 수입·도매상사로 회사대표는 재일교포임
- 무역흑자 사상 첫 일본 추월
 - 금년 10월까지 한국의 무역흑자 누계는 345억8300만달러, 반면 일본은 9월까지 무역흑자가 110억달러에 그침
 - 환율 효과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, 양국의 수출시장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- 日, 한국인에 민간인 최고 훈장 수여 (11/3)
 - 일본 정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욱일대수장(旭日大綬章)을 수여, 욱일대수장은 일본 정부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
 - 김춘미 전 고려대 부설 일본학연구센터 소장은 욱일중수장, 배태수 전 한일 의원연맹 사무총장은 욱일소수장, 재일 한국인인 이우환 전 다마(多摩)미술대 교수도 욱일소수장
- 추월당한 ‘전자대국’ … 일본의 충격
 - 삼성전자의 7~9월 영업이익이 약 3260억엔(약 4조2300억원)으로 일본의 대형 9개사(소니, 파나소닉 등)의 영업이익(1519억엔)보다 두 배 이상으로 日, 전자업계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음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○ 日, 정부 산하기관 자산매각 가속화

- 일본 정부가 100개 가량의 독립행정법인(산하기관) 자산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음, 매각 자산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하기 위해 관련 제한을 없애는 등 방안을 추진
- 1997년의 후쿠다 야스오(福田康夫) 정권에서도 2011년까지 약 6천100억엔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합리화 계획 수립하였으나 재임 1년간 매각 실적은 20억엔에 불과

○ 한일 경제계, 서머타임제 시행 공동 촉구 (11/5)

-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게이단렌과 제4차 관광협력회의를 열어 서머타임제를 한일 양국이 동시에 시행할 것 등의 제안을 담은 합의서 채택
- 현재 OECD 국가 중 서머타임제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, 일본, 아이슬란드뿐임
- 이날 한국측은 동북아시아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공동연구 제안

○ 하토야마, 개인자산에서 정치자금 사용 인정

- 하토야마 총리는 가족의 자산관리회사인 육행상회(六幸商會)에서 관리하는 자신의 계좌에서 비서를 통해 정치자금을 인출하였다고 언급, 자신의 감독 책임을 인정

○ 美·日 정상회담 이달 13일로 확정

- 오바마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공식 방문, 오키나와(沖縄)현 후텐마(普天間) 미군 기지의 이전 문제,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日 정부·업계, 차세대 자동차전략연구회 설치 (11/3)

- 경산성은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업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,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자동차에 탑재하는 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정비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
- ‘차세대 자동차전략연구회’는 분야별 몇 개 실무팀을 설치, 내년 3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. 기술개발 전망이나 표준화 방안, 차량 충전기 등 인프라 정비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안 등도 제안 예정
- 연구회에는 아오키 사토시 일본자동차공업회 회장(혼다 회장), 시가 도시유키 닛산자동차 최고운영책임자(COO), 스즈키 오사무 스즈키 회장, 와타나베 가쓰야키 도요타자동차 부회장, 덴보 아키히코 석유연맹회장(이데미쓰 회장), 모리 쇼스케 전기사업연합회 회장(간사이전력 사장) 등이 참가

○ 행정쇄신회의에서 200개 사업 철폐 검토

- 국가 예산의 절감의 일환으로 경제산업성은 지자체에 교부되는 각종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결정

○ 기업재생지원기구에 중소기업재생 전문팀 구성

- 경산성의 소관 하에 ‘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’를 설치, 우수한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경영이 부진한 중소기업을 선정, 재생 프로그램 지원

○ 도요타 F1 불참.. 속도보다 '환경' 중시

-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향후 모두 F1을 비롯한 국제 카레이스 불참 선언,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차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‘기술신화 붕괴, 고부가가치 소재업체의 모색’, 주간 동양경제, 2009.11.7

- 일본 가와시모기업(川下: 대기업)이 한국 기업의 추월로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가와가미기업(川上: 중소기업)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기술로 높은 수준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
 - 반도체·액정용 소재를 생산, 수출하는 액정 패널은 일본의 재료가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
 - 확고한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무엇이든 대응할 수 있는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기반기술을 응용한 기술개발이 가능했음
 - 가와가미기업이 핵심부품 및 가공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라면, 가와시모기업은 조립가공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을 의미함
-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한국기업은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나 소재분야는 시장규모가 투자금액에 비해 작고,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우월적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음
 - 2008년도 대일 무역적자는 224억달러를 기록, 이 중 대부분이 반도체·액정용 소재로 완제품을 생산·수출할수록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음
 -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대기업은 부품소재 국산화에 주력, LG화학이 일본 기업의 세계점유율 70%이었던 대형액정용 편광판 시장에서 2009년 세계 1위로 시장 탈환
 - 일본의 소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은 국내 생산거점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, 2011까지 ‘부품소재 전용공단’ 설립하기로 결정
-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소재기업은 新분야의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주력
 - 반도체·액정 분야뿐만 아니라 물처리막사업, 유기능상품사업 등 차세대 바이오사이언스 분야로 활로를 전환
 - 일례로 태양전지 셀의 원료인 다결정 실리콘을 공급하는 세계 2위 기업인 도쿠야마는 말레이시아에 생산거점을 이전하여 생산능력을 강화